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충현의 만나

2000

이 달의 말씀 · 히브리서, 열왕기상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1

2000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히브리서, 열왕기상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8.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중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새 천년



새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근거없는 희망과 낙관적인 기대감에 들떠서 화려한 선전과 홍보들로 새 천년의 시작을 기뻐하면서, 정작 이 땅의 역사가 장차 맞이할 어두움과 슬픔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세상은 깊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기술이 빛나고 문화가 화려할수록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기술적 진보 자체가 재앙을 가져다 주고, 모든 인간 기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온 땅을 휘감고 있습니다. 질병과 기아와 사고로 죽어가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허황된 장미빛 희망을 말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소망에 대하여 말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로 가려면 오직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마 11:27). 따라서 200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진정한 믿음뿐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아멘!'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1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충현의 만나

2000년 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열왕기상 서론

열왕기 상,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기’ 역사, 곧 다윗이 죽은 뒤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다룹니다. 특히 열왕기상은 솔로몬으로부터 남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 이스라엘의 아합에 이르는 시기를 다룹니다.

솔로몬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앙성소 곧 성전을 갖춘 왕도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악한 뿌리들을 지나치게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북왕국으로 갈라진 열 지파는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남 예루살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단을 세움으로 우상숭배의 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합과 그의 악처 이세벨은 바알숭배를 여호와 숭배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오히려 여호와 숭배를 멸시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신속히 몰아갔습니다.

결국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예고하신 축복과 징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을, 또한 그 나라들을 어

똥게 다루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 주는 산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람의 연약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의 슬픔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주요내용

1. 솔로몬의 왕위 등극(1:1-2:46)
2. 솔로몬의 업적과 영광(3:1-8:66)
3. 솔로몬의 영적 쇠락(9:1-11:43)
4. 왕국의 분열((12:1-14:31)
5. 유다 왕 아비얌과 아사(15:1-24)
6. 이스라엘 왕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15:25-16:28)
7. 이스라엘와 아합와 선지자 엘리야(16:29-22:40)
8. 유다 왕 여호사밧(22:41-50)
9.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22:51-53)

찬송 / 248장, 397장 본문 / 히 9:23-28

새 천 년을 여는 첫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새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 대항하여 이기려면,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 이라고 말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본다' 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옛 언약의 성소와 새 언약의 성소 사이의 완전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새 언약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 을 소유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성소에서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상의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하늘 대제사장을 의지합니다. 그 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시며 앞으로도 항상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24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맡기지 맙시다. '손으로 만든'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들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성소는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올 한 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 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처한 곤궁과 산더미처럼 쌓인 사회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상과 정책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한결같이 실패로 끝나고 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지적인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적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다.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복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 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된' (9:28)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바로 이것만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유대교의 속죄일은 '죄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입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가리우고 심판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오직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앞으로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文豪)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찾아 헤매는 유한한 인간의 순간적 은혜여!”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은혜를 찾아 헤맵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우린 매우 기뻐합니다. 친구나 성직자에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은 후 날아갈 것 같은 자유를 맛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17절) 예수님의 은혜의 소식 앞에서는 정작 반응이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같은 제사를 계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수천의 동물 제사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지금 존귀케 되셔서 승리의 자리에 계십니다(12절).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자신의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14절).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는 모두 사해지며 그 허물은 사라집니다. 문제가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③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만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온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옛 언약 하에서는 어떤 예배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시도를 할 만큼 대담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는 일 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진 두꺼운 휘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휘장을 찢었고(막 15:38),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힘입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공개적인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지성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매일 매 순간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③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단계를 보면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홀려 떠내려갑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에 있는 다섯 가지 권면 중에 네 번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기에 이른 신자에 대한 엄숙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대한 '멸시'는 고의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한 번의 특별한 범죄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자기를 구원한 보배로운 피를 값없는 것으로 여기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는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맹렬한 불"(27절) 혹은 "더 중한 형벌"(29절)이 그를 처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떠나 영적으로 의심하고 둔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기에 이른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제사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이 우리를 죄를 사함받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진정한 신앙은 연단 속에서 입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정확히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기면서까지도 비방과 환난을 기꺼이 견뎌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꺾박당하지 않을 때에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갇히기까지 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큰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 확신을 던져 버리고 옛 종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격려와 확신의 말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의 지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들은 결코 탈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 (34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8절)는 하박국 선지자의 설교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완전한 데 나아갈' (히 6:2)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39절)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확신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23절).

인내합시다. 신뢰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려 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 볼 때는 별로 부합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은 맹목적인 낙천주의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인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원리나 내용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미신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혹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든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환경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두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이 최선의 의로운 바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까?

믿음이란 미래를 현재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자 자량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 일도 열심히 하며 직장생활에도 힘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그분의 기쁨이자 자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6절). 인간을 기쁘게 하려면 인간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사람 세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믿음의 세 유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벨입니다(4절). 아벨은 예수님에 의해 '의인'으로 평가받습니다(마 23:35).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종교적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에녹입니다(5-6절).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셋째, 노아입니다(7절). 노아는 홍수 대심관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 (7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순종한 데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믿음으로 방주 짓는 일을 하여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소망이 삶을 지탱합니다. 그 기대가 깨어질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약 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장막”과 대조를 이루는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삭, 야곱은 모두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사람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은 아무리 쫓아가더라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실체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없이 결정하고 나에게 편리한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대로 얻은 이삭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갈등을 제쳐두고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마땅히 장자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양시켜 주어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속임수에 능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야곱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팔을 어긋나게 함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줍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어가지만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서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갈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인간적인 판단이나 결단을 내리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학, 직업, 종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족된 선택을 위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던져야 할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릎쓰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지만, “호화로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열번째 재앙 가운데서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으며, 주저하지 않고 홍해를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가나안에 돌입하는 여호수아는 치밀한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리합은 언약의 백성들을 도움으로 멸망하는 동족의 멸망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선택을 잘못하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 선택하고, 현실의 것에 애착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오 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재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들의 알팍한 신앙에 도전합니다. “기드온”(삿 7) “바락”(삿 4) “삼손”(삿 13-16) “입다”(삿 11-12), “삼손”(삿 13-16), “사무엘”(삼상 1-15), “다윗”(삼상 16-삼하 24)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 풀무불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적들의 칼날 앞에서도 예언을 쉬지 않았던 “엘리아와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각종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정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들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이 보지 못한 약속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리석게 고난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들은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치루고 있습니다. 조금만 물러서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굽히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와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는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1장에 언급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으로 고난 받는 수신자들 주변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가 당한 고통을 묵상하고, 그가 대적자들을 용서하신 너그러운 마음을 묵상하노라면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징계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받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평강과 의의 열매를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지 않을 자유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징계를 그릇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하십시오. 처절한 고통 앞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앞에 놓인 경주를 잘 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가정이나 교회, 직장 그 어느 공동체든지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서로를 세워준다면 그 공동체가말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지칠대로 지쳐서 좌절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맺어야 할 필수적인 열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몇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경계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가? 둘째는 쓴뿌리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없는가? 셋째는 음행하는 자가 없는가? 넷째는 장자의 축복을 등한히 여겨 육체적인 만족으로 바꾸는 망령된 사람은 없는가?" 혹시 다른 지체가 이러한 병에 걸려갈 때 서로를 경계하고 바로 세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도달해야만 할 목적지인 "곧은 길"에 도착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동체의 멤버들이 항상 올바른 길만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가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아갈 때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떠할지라도 "서로 돌아보고 경계" 함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은 길에 이르기 위해 서로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공동체와 지체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가치”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줄 모르고 살다가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힘겨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신 산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 임한 하나님의 현현은 거룩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 까지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시온산”을 시내산에 대조시키면서 수신자들이 이곳에 이르렀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22-24).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예루살렘성입니다. 이곳에는 “천만 천사”, “의인의 영들”, 모든 성도들의 회합인 “장자들의 총회”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새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시온산에서 누릴 잔치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꾀박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지라도 그들은 시온산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눈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교제의 장소로 초청을 받은 당신이 혹시 아직까지 교제의 장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온산”의 감격을 하늘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으로 시온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시온산에서 누릴 감격과 교제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 하게 되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때때로 짜증스럽게 섬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저희”와 “우리”, “땅”의 경고와 “하늘”의 경고를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불순종했지만, 수신자들은 “배반”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현현하실 때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의 진동보다 더 큰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변동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새언약의 계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하겠습니까? “진동할 것” “손으로 만든 것”을 받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새언약의 백성들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이심을 기억합니다. 심판하실 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방종하고, 배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실 분”이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분을 배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에 무릎꿇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형편은 어떠하든지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비기독교인들(Non christian)에 의해서 체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뉴스의 초점에 오르내리는 이유도 우리들의 삶이 더 밝은 곳에서 드러나며,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 이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과 12장에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다른 저자가 13장에서는 사랑의 실천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불 밑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고 실천되어 질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의 궁극적인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마 22:37-39)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신 6:4), 다음은 이웃 사랑(레 19:18)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위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형제들에게도(1절) 아직도 죄에 갇힌 자들(3절)에게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다른 사람들로 부터 격리되어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일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구를 떠난 멀리 화성에서 따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마 5:13-16)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소금이 소금 아닌 것과 구별되는 점이 없다면 소금이 아닙니다. 또한 빛이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 하지 못한다면 빛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 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부탁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거룩 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반드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별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힘써 나누어주는 삶(16절)이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17절)입니다. 우리는 양무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이 연속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성별된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별된 삶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엉뚱한 돌발 사태나 사람들의 개입 때문에 내가 본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순간 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시 18:1)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성군 다윗도 나이 많아 그의 열조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용사요 영웅인 그도 자신의 한계를 부정 할 수 없습니다(전 8:8).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에게서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히 그의 사후 후계 구도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쇠함을 기회로 삼아 살아 있는 부친을 두고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다윗이 학깃에게서 나온 아들로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어물쩍 거리다가는 자신에게는 도무지 분깃이 없겠다고 판단하고(5절),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든 일을 아도니아 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입니까?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야의 불순종적인 반역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과 다윗의 아내 밋세바를 통해서 그 반역을 막으십니다. 나단이 급히 사람을 다윗에게로 보내어 아도니야의 역모 사실을 알립니다(11-21절). 다윗이 너무 늙어 나단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기까지 반역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도니야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모반에 참석하고 부왕 다윗으로부터 아도니야를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공식적 태도 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20, 27). 나단과 밋세바의 발빠른 대응은 아도니야의 음모가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단순히 아도니야의 반역이 저지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단지 왕위 계승을 앞두고 왕실의 뉘그러는 암투의 한 장면을 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모든 결정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네 아들 솔로몬이 네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도니야를 물리치시고 약속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겠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어 수리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마도 솔로몬만큼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높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그에게도 엄청난 시련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복형인 아도니야가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청하고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들을 많이 잡고 연회를 베풀 동안에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자칫하면 그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야의 반역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대 장관 브나야를 앞세우고 기혼 샘에 이르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 왕이 됨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아도니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난 뒤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 뿔을 잡았습니다(50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을까요?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은 형을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에 서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비록 환난과 곤고함이 많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後嗣) 곧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벧전 2:9)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③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죽음에 임해서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해 집니다. 여러분들은 불원간에 다가오게 될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사는가?” 라는 문제 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도 그의 혈기 방장하고 호령하던 군주의 모습도 다 내려놓은 채 그의 열조들이 간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에 임박해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그 길로 행하라”(2, 3절)고 아들 솔로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통치한 40년 기간을 “심히 견고한” 기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12절).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임종에 임박해서 여러분을 둘러싼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채 문제? 아니면 재산 분배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천국의 문턱에 입성하는 승리의 개신장군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 수 있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케냐)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마음은 조마조마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의 결과를 뻔히 아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음이 우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복 동생인 왕 솔로몬에 의해 사면을 받긴 했지만, 반역의 기수인 아도니야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사후에 더욱 불안해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도니야는 솔로몬이 모친 밋새바에게 와서 영똥한 것을 구합니다. 무슨 담력으로 이런 것을 구했는지 연구해볼 만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동녀(童女)였던 수넴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구했습니다. 아도니야의 이 태도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행위로 마땅히 징계되어야 합니다. 족장 시대에 르우벤도 그의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일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는데(창 49:4) 어리석게도 아도니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의 생명의 은인인 솔로몬에게까지 가서 구합니다. 과연 솔로몬으로 하여금 피가 가꾸로 쏟아 오르게 할만큼 자극적인 그리고 무모한 요구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여호와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23절)고 결구합니다. 반역자 아도니야는 그날 군대 장관 브나야에 의해 어리석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멸망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보다, 책망 받을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올라 갈 때 다윗의 뒤를 따라가며 티끌과 돌들을 날리면서 왕을 저주했던 반역자입니다(삼하 16:5-14). 그리고 아비아달과 요압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다윗을 모반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그와 함께 주도적으로 반역에 동참한 군대 장관과 제사장입니다(왕상 2:26,27).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은혜로 그들의 목숨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들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무척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계와 분수를 넘어 원수로 행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44절). 시므이의 까닭 없이 발한 저주가 결국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자 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 가다가 보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경솔하게 입을 사용했다가 낭패스런 일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약 3:1-12). 또 혀를 제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쉽게 형제를 정죄 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의 입에 파숫군을 세워 주소서.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 줄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치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드리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생활하면서 수시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간단 간단하게 아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속에서 조차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한 후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던 중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후,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지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 유명한 사건은 '꿈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꿈 속에서조차 참으로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 다윗의 위를 쫓아 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 안에 머물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꿈 속에서까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②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 리들은 맡겨진 일을 야무지게 처리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운 마음' (9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면서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잘 파악하고 분별해내어 진의를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할 때 슬슬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더욱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여인(아마도 창기였을 것)이 솔로몬앞에 나아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고집하며 다투는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빛나는가를 여실히 봅니다. 그는 갓난아기를 칼로 베어 둘로 나누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림으로 두 여인의 충심을 들추어냅니다. 그에따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앞에서 가짜 엄마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고 아기는 진짜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주장과 편견들, 그리고 이단사설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방 사라지고말 유익을 위해 구하기 보다 진리안에 거하는 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빛이 납니다.

▶ 기도 제목 / ①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모든 사회에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거치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파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시대에는 왕을 배출했던 베나민 지파가 주축을 이루기도 하고, 또 다윗이 집권했을 때에는 다윗이 소속된 유다지파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지파, 어떤 직책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격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솔로몬 정권의 조직도 그 특징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시대에는 항상 군대장관이 조직에서 최우선시 되었다면, 솔로몬시대에는 제사장이 가장 우선하는 자리에 위치합니다 (2,4절). 그리고나서 행정 및 관료들의 순으로 나열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가 전쟁 후,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로 돌입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솔로몬이 이를 가장 큰 과업이 성전건축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부친 다윗의 희생적인 개척정신 덕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활에 가장 우선되는 일로 정하느냐가 내 삶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생활은 나의 자녀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최우선하는 일(지배 가치)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 ①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삶의 질' 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일반 생활인들은 안정적인 생활여건(경제적 만족과 가정적인 안정)에서 삶의 질을 찾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환경(확보된 권력과 든든한 지지자들)에서 그것을 찾고, 열심히있는 신앙인들은 풍부한 은사와 영적인 능력, 누구라도 인정해줄 수 있는 신앙의 지식에서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예는 다함이 없을 정도여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공을 바쳐 그를 섬겼습니다(21절). 그의 식탁은 날마다 풍성했으며, 그가 관할한 모든 땅에는 평화가 흘러 넘쳤습니다. 말과 마병도 넘쳐나 군사력이 막강했고, 비축된 군량미도 충분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29절). 그는 동양 모든 사람 및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의 박식함은 그가 말한 잠언들과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솔로몬이 이 모든 완벽한 축복과 은총을 어떻게 잃기 시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완벽한 축복과 풍부함 속에서 안일해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은총의 증거들도 덩달아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 기도 제목 / 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교회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느 한 순간, 혹은 한 시기에 내가 행한 일이 얽히고 헉서 먼 훗날 어느 순간에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순간 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시간은 현재 뿐이라'고 생각한 것도 유사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는 동안 한 두 번의 큰 실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매우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전해져 두로왕 히람의 마음속에까지 다윗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윗이 죽고난 후에도 계속되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히람은 매우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돕게 되었습니다(7-8절). 한편, 솔로몬은 성전 재건을 위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켜 대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13절).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강제부역의 형태로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통치 말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쪽지파들은 솔로몬의 노동착취에 깊은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다윗 후손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게 됩니다. 질그릇같은 우리는 겸손하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우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매순간 우리들이 감당해야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순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야 훗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매 순간의 삶의 흔적이 내일과 영원까지 항상 중요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언행심사를 주장하셔서 훗날까지 아름답게 하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바라고 또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대체로 이루어진 그 사실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그 바라던 바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들어 한 가정이 집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 희생하며 많은 정성을 기울인 결과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넓은 집을 사서 가족이 각각 방을 한 칸 씩 쓸 정도로 여유가 많아지자 오히려 더 가족애가 없어지는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목적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 한 예배 장소에 대한 예언이 있고서 거의 48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고대하던 집이요, 회월에 가득찰 만한 내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건축을 행하는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12-13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성전이 의미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성전은 무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모든 종교활동은 무가치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솔로몬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값비싼 석재와 정교히 재단된 백향목위에 덧씌운 정금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고 앗수르 등의 제왕들도 자신들의 부와 권세, 신들에 대한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 신전에 금을 입히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형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 신전들에는 예외없이 등장하는 신의 형상이 여호와와의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왜 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객관적 대상으로 표현될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죄가 씻겨짐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그 형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자신을 드러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가장 일차적인 창문은 바로 나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②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오늘의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서문

바울은 현명한 목회자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일해오신 방법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두려움없이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옹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어떤 교인이 자기를 가리켜 변덕스럽다고 한 비난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감하나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열린 그의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처음 아홉 장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네 장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문제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가려내겠다고 분명히 작정합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중 가장 열정적이고 진지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역에 따르는 문제들과 그에대한 권면들을 충분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서신서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4:5)

고린도후서의 주요내용

1. 인사와 감사(1:1-11)
2.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1:12-2:17)
3. 복음 사역자의 특징(3:1-7:16)
4. 연보를 위한 충고와 준비(8:1-9:5)
5. 연보에 대한 보상(9:6-15)
6. 복종의 요구(10:1-6)
7. 거짓 사도들(10:7-11:15)
8. 사도의 신임장(11:16-12:10)
9. 예비적 충고(12:11-13:10)
10. 문안과 축복(13:11-14)

제 1 과

고린도후서(1)

위 로

찬 송 / 471장
읽을 말씀 / 1:1-2:17
공부할 말씀 / 1:3-7

먼저 읽기

바울은 자신의 전형적인 인사말과 함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되, 디모데를 자신과 대등한 발신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특히 편지의 서두에서 '위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베푸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서적인 압박 뿐 아니라, 때로는 신체적인 위협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 창문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오늘 본문(3-7절)에는 '위로'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2.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3절).

3.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4절)

4.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과 위로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6절 상반절)

5. 성도안에서 역사하는 위로가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6절 하반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위로'라는 말의 일차적인 뜻은 '도움을 청하려고 가까이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늘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어떻게 느끼고 또 아십니까?
2. 그리스도인의 생활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실제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34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른 환난받는 이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환난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잘 위로할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제 2 과

고린도후서(2)

화 목

찬 송 / 278장
읽을 말씀 / 3:1-7:16
공부할 말씀 / 5:16-21

먼저 읽기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필요한 힘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능력있게 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힘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15절). 그에따라 바울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몇가지 결과들을 가르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합니까?(17절)

2.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니까?(16절)

3.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18절 하반절, 19절)

4.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수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21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개인적인 답변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2.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합니까? 달라졌다면, 혹은 여전하다면 그 각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 3 과

고린도후서(3)

헌 금

찬 송 / 69장

읽을 말씀 / 8:1-10:6

공부할 말씀 / 8:1-15

먼저 읽기

바울은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었습니다(갈2:10). 물론, 바울로서는 이 일을 통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간의 본연의 일체성을 널리 드러내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의 헌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축복에대한 감사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바울은 이제 기근으로 가난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예루살렘교회를 위해 이미 헌금한 마게도냐(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 교회들의 헌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합니까?

3절 -

4절 -

5절 -

2. 바울은 이제 바른 헌금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에 어떤 원리를 제공하십니까?(9절)

3. 바울이 제시하는 헌금의 또다른 원리가 13-14절 사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
4. 바울은 13-14절에서 제시한 헌금의 원리를 위해 구약의 예를 듭니다. 무엇입니까?(1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헌금의 원리와 정신(특별히 구제헌금)' 을 차례로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헌금의 정신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 자세로 헌금해 왔습니까?
3. 본문이 제시하는 헌금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나의 헌금생활은 어떠합니까?
① 잘하는 것 같다 ② 못하는 것 같다(그 이유는?)
4. 나는 어떻게 구제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 4 과

고린도후서(4)

약 함

찬 송 / 467장

읽을 말씀 / 10:7-13:14

공부할 말씀 / 12:7-10

먼저 읽기

바울은 어떤 교인들과는 달리 신비주의적 체험들에 대해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위 '큰 사도들' 중 어떤 이들이 바울은 그런 체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비아냥거린다면 그에게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있었던 그 체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 처럼 돌려서 말하지만, 그가 체험한 하늘의 영광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이한 영적 체험이 영적인 자만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까다로운 고통을 고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신 이유가 바로 자신을 겸손케 하시기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7절)
2.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하나님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8절)
3.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9절 상반절)
4.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9절 하반절)
5.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 각자에게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더욱 바라볼 수 있게되는 '그것'! 당신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2.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꺼이 수용하고 계십니까?
3.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는 위대한 고백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강할 그 때에 곧 약함이니라'도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맛보고, 강할 때 오히려 약함을 맛본 간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우리가 지속적으로 약함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7 과

하나님의 사랑

찬 송 / 404장

읽을 말씀 / 습 3:16-20

외울 말씀 / 습 3:17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지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습3:17을 읽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2. 습3:17의 전반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십니까?

3. 눅3:17 후반부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시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4.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거나 잠잠히 사랑하거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과 비교해 보십시오.

요 13:1을 읽어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5. 요 13:1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말해봅시다.

6.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요3:16

롬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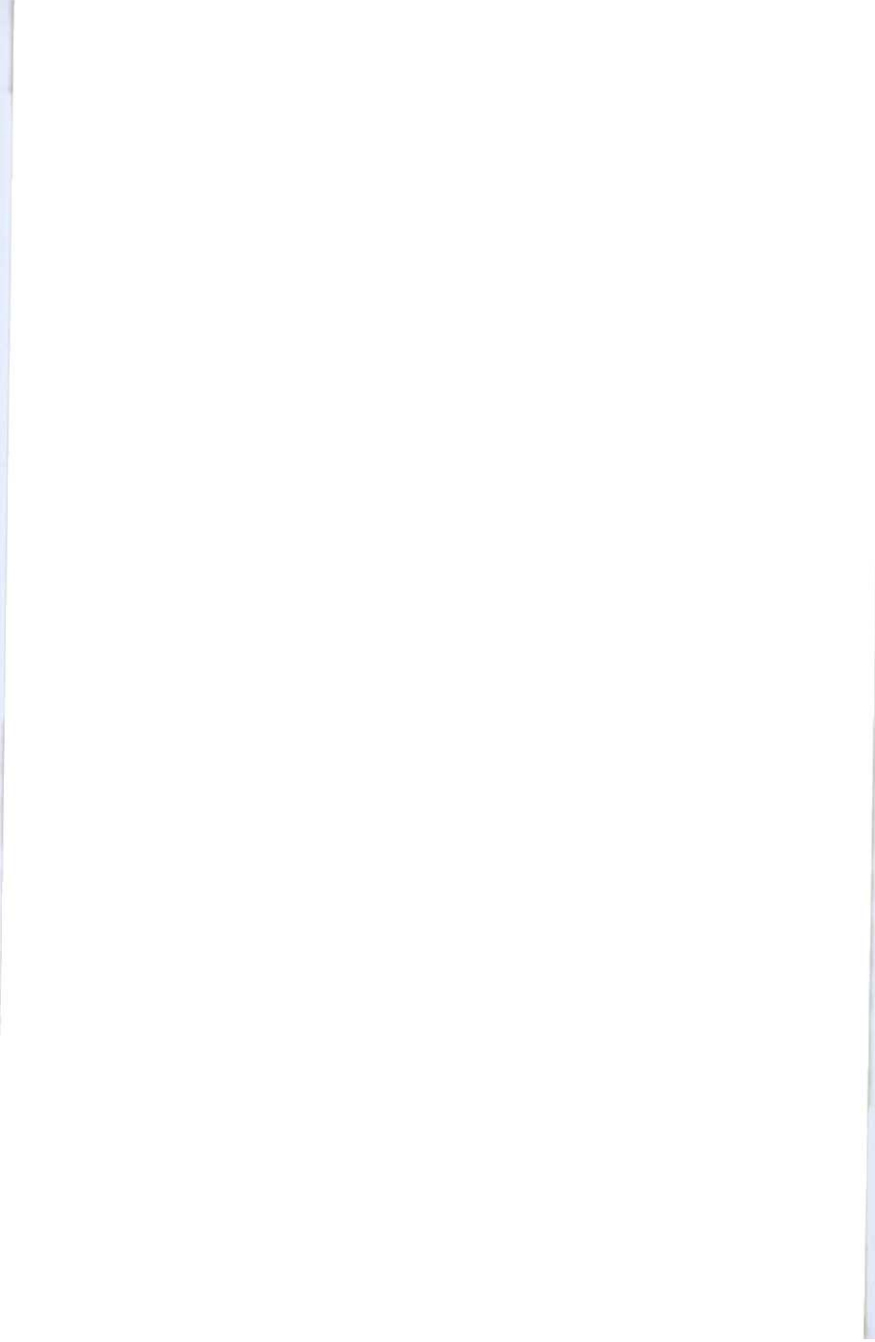
엡1:3

엡5:2

시 18:1을 읽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7. 시편 18:1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은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체험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고백을 나누어 봅시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